

“제주 본향당 이야기”

-서귀본향당 신화-

1. 채록대상자 : 박정석/서귀포 본향당 주지
2. 채록 일자 : 2017.03.27

여기 서귀본향당은 우리 제주도의 유일무이하게 외래신이 좌정하신 곳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신하면, 송당에 백주포 소로소천국 거기 자식들이 각 마을마다 본향당의 당주로서 토지관으로서 안주하면서, 이제 본향당이 생기고 했는데, 서귀 본향당은 유일무이하게 외래신이란 말은 천신입니다.

여기에 신화의 말미 첫 소절에도 나와 있지만 흥토나라, 흥토나라는 풍토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의 나라죠. 바람 나라의 왕하고 비우천리 비우나라라는 비의 나라입니다. 비우나라의 여왕하고 혼인으로 맺어진 자식이, 큰 아들이 되는 보름웃도님이 우리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유람을 하게 되는데 유람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고산국이란 나라에서 하룻밤 기거하게 됩니다.

기거하게 되는데 그 고산국은 과연 어디냐 고산국은 우리 고조선 사에 보면 일흔여덟 개의 촌.읍중에서 고산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고산국에서 기거를 하다가 마침 거기에는 딸을, 어떤 대감의 딸을 보고 반해서 마음속으로 점지를 했지만 함부로 딸을 달라고 할 순 없겠죠.

그래서 생각다 못해 다음날이 돼서야, 주인장 되는 대감님한테 혹 이제 따님을 저한테 시집오게 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한 것이, 그러면 옛날에도 장기바둑을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바둑을 두어서 이기면 내가 딸을 주마. 이렇게 해서 장기를 뒀는데 세 번 다 이겼어요. 초판 이판 삼판이란 것은 우리 한국의 삼세번이 승부를 하는 하나의 관례인데 세 번 다 이기니까 딸을 주겠다했는데,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혼을 하는데 한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놓고 첫날밤에 대감님 집에서 서로 인연을 맺으려고 해서 보니까 그때까지 자기 부인이 자기가 봤던 아녀자인가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도 신부는 얼굴에 너울을 쓰고 했는가 봐요. 방안에 들어와서 너울을 걸어서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부는 곰보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사내라고 봐야지 여자라고 볼 수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탄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뒤돌아 앉아서 핑계 삼아 책을 읽읍네 해서 책을 읽고. 그러다 날이 밝아서 아침에 시녀들이 와서 시중을 드는데 대야에다 세숫물을 가져오고 하니까 시녀한테 살그머니 물었어요.

이 집에 딸이 몇이나 되느냐 했더니

“딸이 둘인데요,” 아 “그럼 내가 잘못봤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은 어디계시냐” 했더니, 따님이 방에 있는데 볼 수 없느냐 하니까, 글썽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그래서 이 분이 큰 부인이 되는 신부하고 인연을 맺을 마음이 없어서 그로부터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며칠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칩간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 행여나 만나진 않을까 자기가 반했던 아녀자를 볼 수 없을까 해서 칩간을 왕래하다보니 작은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딸도 자기 언니하고 결혼했지만 처음에 남자를 봤을 적에는 남자한테 반했던 거죠. 마음에 심중에는 그렇게 연을 짝을 띄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본부인 모르게 밀회를 했는데,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살자, 그래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도망가는 길이 어디냐 했더니 천상에서는 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경치 좋고 좋은 곳을 다 볼 수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 같은 예의바른 나라라고 하는데, 예의바른 나라에 보고 싶다 해서 내려왔던 길에 고산국에서 인연을 맺었는데 작은 딸하고 그럼 보고 싶지 않은 곳에 몰래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삼신산 중에 방장산, 금강산을 찾아옵니다.

금강산을 찾아오고 나서 금강산을 두루 보니 산세 수려하고 아름답지만 사람이 살기엔 너무 각박하다. 이곳엔 짐승들이 살기엔 천상이지만, 인간이 살기엔 그것이 아니다 해서, 다시 이제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내려온 것이 방장산에 이릅니다.

방장산에 와서 지리산에 와서 보니까 지리산세가 너무나 완만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뱀굴이 많아요. 아 여기는 그렇게 흉칙한 동물하고는 같이 기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바다 건너에 있는 영주산을 한번 보자, 그래서 물 건너 온 것이 한라산에 이릅니다.

천상의 신의 자식이니까, 모든 조화를 부리지 못하는 건 아니죠. 조화를 부려서 구름도 타고 한라산에 당도하니까 마침 한라산이 밤이었어요. 밤이 되가지고 우리 무속에는 ‘일목공’이라 그러는데 밤이 되고 안개가 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라산 백록담 절벽에 걸터앉아가지고 동생 되는 분하고 그니까 처제하고 손을 잡고서 앉아가 날이 빨리 밝아야 되겠다, 안개도 걷혀야겠다 해서 주문을 외고 자기가 가졌던 부채로 한 세번 주문을 외고 걸으니깐 안개가 걷히고 날이 밝습니다.

그걸 뭐 ‘동경개문’ 열린다 하는 식으로 하는 얘기가 됩니다만 그다음 날이 밝으니까 절벽 위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 돌아보니까 정말 살만한 곳이다. 너른 들판이 보이고 바다가 있고, 그래서 여기만큼은 살만한 곳이다 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 온 것이 지금의 미악산에 이릅니다.

솔오름, 솔오름에 와서 동창막 서막이여 동막이여 천으로 하지만, 아마 그때 자기네가 천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에 하나의 바람 의지하는 곳에 안주했겠죠. 안주해서 앉아있으려니까 어느 인간이 곁에 와서 멀리서 넙죽이 절을 하면서 신전님이 내려왔으니까 제가 감히 인사를 드립니다. 한 것이 ‘김봉태’라는 할아버지가 돼요.

김봉태는 그때 당시에는 사냥꾼이죠. 한라산의 짐승이나 잡고 가죽감태 쓰고 해가지고 했던 김봉태 할아버지인데, 김봉태 할아버지가 이 '보름웃도'님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안주할 곳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안내한 것이 어디냐 하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으로 안내를 했는데 자기 집이 어느 쪽이냐면 지금 현재 지형으로는 '굴왓디'가 됩니다. '동흥동 굴왓디'. 동흥동 굴왓디에다가 이제 오니까 자기 집에 오니까 이 '보름웃도' 신전님이 도저히 여기서는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인간 냄새가 더럽고 또 연기피우고 밥해먹고 하니까 끄렁내가 나고 냄새가 독해서 여기 안주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을 안내해라 해서 안내한 것이 어디냐하면 '서흥리 안카름'이에요.

서흥리 안카름에는 지금도 시냇물이 있어가지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일부 인간들이 살았기 때문에 소, 닭, 개 소리들이 시끄러우니까 여기도 와서 좌정 안주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소개를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어디로 가느냐하면 '가시머루'로 갑니다. '가시머루'는 지금 현재의 호근동 있는 가시머리에요. 가시머리로 갔는데 그때 마침 큰 부인이 동생하고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축언을 드립니다.

내가 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내 동생하고 도망쳤으니, 정말 신의 자식이라 하면 서도 신의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고 인간사회에 나와서 너무나 파렴치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큰 부인이 옥황상제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어떤 결말을 내고 살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신신당부를 했더니 옥황상제께서 큰 딸에게 무예기공을 줍니다.

구름을 탈 수 있고 축지법을 할 수 있고 활과 칼을 쓸 수 있는 무도 가르치고. 그런 것을 가져서 본 부인이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한라산에 오니까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서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할 때 이제 상제님께 얘기를 기도를 하니까, 내가 준 자그마한 부채로 너 소원을 빌라, 그래서 부채를 비니까 부채로 하여금 안개를 걷히고 어둠을 걷히고 해서 보니까, 한라산에서 보니까 '가시머루'에 두 남녀가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내달음을 쳐서 가시머리로 당도해서 남편을 죽이려고 보니, 그래도 녹본인정이라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정분은 나누지 않아도 혼례를 치렀던 녹본인정이라 죽일 수 없고 동생을 봐도 동생은 피를 나눈 형제니 차마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 다 한꺼번에 죽이고 자기도 죽으리라 마음먹고 왔는데, 그런 인정과 정분으로 해서 죽일 수도 없고 하니 곱을 갈라서 지경을 가르자 해서 자기가 지고 온 활, 그니까 우리 고양부 할 적에 삼사석에 하듯이 활로 지경을 가릅니다. 그래서 보름웃도님이 먼저 활을 쏘니까 문섬 뒤로 떨어지고 본부인이 자기도 활을 쏘아버리면 동생 갈 데 올 데 없을 거 같다 싶어가지고 기독교 신화에서 나오는 뿔니까, 뿔개!

끈에 돌맹이를 해가지고 돌려서 던져서 돌이 떨어진 곳에 자기가 점지했는데 그 돌이 서흥리 흑담에 떨어집니다. 서흥리 흑담이 어디냐 하면 '지장샘' 있는 곳이에요.

지장샘 있는 곳이고. 떨어져서 하니까 이로부터는 서귀포 쪽을 남편한테 하고, 자기는 서흥리를 해서 지경을 가르고 거기는 인간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전부 다 곱을 가르자 해서 곱을 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언니한테 잘못을 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뉘우치고 해서 저는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너는 성을 바꿔라 했죠. 그래서 성을 '지가'로 바꾸죠. 지가로 바꾸니까 너가 성을 바꿔서 하니까 동흥리를 너가 가져라 해서 동흥리에 가서 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고산국은 큰 부인이 돼서 서흥리를 점지해서 하고 하는데 큰 부인이 되다보니까 자기는 서흥리에 하고, 그 다음부터 서흥리 위로는 산으로도 올라가면 나무니 뭐니도 전부 지경을 가르니까 범접할 수가 없고 인연을 맺을 수도 없어요.

서로 결혼할 수도 없고 왕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 지산국은 동흥리를 해서 동흥리 소나무가지 알로 해서 좌정하려고 했는데 서귀포에 온 보름웃도님은 이 신당 알로 좌정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신당 알로 좌정하려고 할 적에 동흥리와 서귀포에 사시는 주민들이 오씨 이씨 김씨 현씨 박씨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여기 별초당을 짓죠. 별초당을 지어서 여기 안주하게 됩니다. 저기 후박나무가 원래 두 그루였어요. 두 그루인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왼쪽으로 한 그루 있어서 꼭 부부 나무처럼 두 그루였는데 그때부터 여기 안주해서 좌정했는데, 좌정한 이후에 서귀본향당에 이 분들이 '보름웃도'하고 '지산국'님이 좌정함으로 인해서 동흥리 주민과 서귀포 주민이 여기 와서 기원을 하고 축원을 다 하죠. 하고 서흥리는 일절 축원을 여기도 오지않고 서흥리 거기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 동서흥간에 왕래가 없고 서흥리와 서귀포 간에 왕래가 없었죠.

없어서 혼인도 없고 어떤 인연도 두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저가 이제 저희 백부가 원래 22대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나이가 115살 될 겁니다. 그런데 서귀본향당을 지으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초대에 매인 심방이 누구냐하면, 고씨 성을 가진 분이예요 제주 고씨. 고씨 성을 가진 분이 이제 했는데 그분은 원래는 모슬포 신평리 사람이예요. 모슬포 신평리 분이 여기 와서 매인 심방이 됐죠. 그 후에는 다른 성을 가지신 분이 별초당을 지으신 분들의 자손들이나, 그분들이 매인 심방 노릇을 돌아가면서 해왔던 거죠.

해오다가 우리 백부까지 온 것이 22대가 돼요. 22대가 되고 여기 신당은 사라호 태풍 때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돼서 이 신낭(목)을 자를 적에 5일동안 자르는데, 그때 큰 제사를 지내고 잘랐죠. 그렇게 안하면 사람이 죽임을 당할거라 그랬는데 서귀포의 본향에 여긴 천신의 자손으로서, 여기 좌정하면서 뭐냐하면 바람과 비를, 풍우를 일으켜 주고 해주던 분이어서 서귀포에는 다른 데보다 곡식도 잘 되고 상당히 풍족했어요.

풍족해서 하는데 이 분 밑에 그래서 하위 신, 네 개의 하위 신이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바닷가는 물론 바다에서 오는 배를 다스리고 해녀를 다스리고 잠수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은 요왕의 딸인데, 그 요왕의 딸은 '중앙황제국'이라 하면 요왕의 다섯 그니까 동서남북말고 중앙에 있는 황제 요왕의 따님이예요.

그 분이 서귀포에 상륙해서 여기 와서 본향신에게 오니까 본향신이 그럼 오고가는 배와 잠수들을 다 거느리라 해서 했고. 그리고 서귀포 진성이 생기니까 서귀포 원래 진성이 어디냐면 서흥리에 있었죠.

지형으로 하면, 지금의 어디냐면 솜반내 아시죠, 솜반내 다리 지나서 우측에가 거기가 소위 얘기하면 옛날 서귀진성이었어요. 역사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걸. 그래서 나중에 서귀진성이 본래의 서귀포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서귀포진성이 서귀포로 내려오면서 그 관청을 다스리고 관청의 일을 돌보게 했던 관청의 신이 있었는데 그 관청신을 하위신으로 두고.

그리고 솔동산과 여기 이중섭 거리하고 만나는 네거리인데. 동쪽으로는 서귀포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목. 삼거리, 글로부터 서쪽으로는 서귀포천주교회 지나서 매일시장 입구까지. 거기까지가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밭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솔동산 길 한가운데를 터있는 곳에 거기에 거북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북바위가 농신을 모시고 제를 지내고 했던 거북바위에요 원래가 농신이 있었고, 그다음이 이제 김봉태 할아버지한테는 보름웃도님이 너는 이제부터 산신으로 들어앉아서 모든 사냥한 것을 해서 제일 때마다 바치라

그래서 산신으로 들어앉은 거죠. 해서 하위신이 어느 마을에든 간에 본향신 밑으로 하위 신을 거느린 데는 서귀포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서귀포는 외지에 온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기도를 여기 원래 토착민들은 잘 살기도 했지만 제일 때마다 정성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망하는 일이 없고 가세가 기우는 일 없이 넉넉하게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 대 되면 우리 대 썸 됩니다.

우리 대 썸 되니까 자식들이 이제 본향당도 모르고 며느리들도 대우하고, 모르고 하니까 점점 외세 문화에 휩쓸려서 하다보니까 아무리 서귀포는 공부 잘 하고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한량으로 살아버리니까 아직까지 어려운 것을 모르다보니까 한량들이 뭍니까, 낭비벽 아닙니까, 결국은 가세가 다 기운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에는 그래서 원 토착민들이 가세는 거의 다 쓰러졌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융성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고 여기 와서 축원을 하는 분들은 인연을 맺으려면 인연이 잘 맺어져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가 개방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방명록도 놓고 가면 기재하고 가는데 그 분들이 여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럼 벌써 자기네가 신을 모시고 하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네가 안돼요. 정말 무서운 곳이다. 함부로 하지 못할 곳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도 왔다 가면 매년마다 와요. 매년마다 오고 제주도 오면 기도처라 해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무조건 기도하는게 아니고 본향에 와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문을 잠그니까 저렇게 지저분하고, 원래는 어느 마을에도 본향 있는 제단에 더럽게 해선 안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축원했다가 한 나머지는 전부 다 퇴송해다가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지고 가야죠. 깨끗하게.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무질서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중간에 쭉 내려오다가 여기 보면 그래요. 제가 이 본향당에 1971년도에 제가 이제 대통령선거니 해서 중앙에 있었

어요. 중앙에 있다가 종교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주도에 민속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제주도의 심방이 586명이예요, 그때 당시에, 점쟁이 말고 심방만. 심방은 어떤 심방이냐 하면 북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소무 일일뿐이고 그건 심방이 아니니까. 원래 선거라해서 하는 심방이 586명이었어요. 다 돌아가신 분들 전부 그때도 한창 날릴 때죠. 안사인씨도 그때 용담 냇가 골창 옆에다가 초가집지어서 할 적에 저도 한 3, 4일씩 같이 잠자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거보면 서귀포 본향당이 조선시대에도 허물지 않았다는 것은 이형상목사도 서귀진성에 왔다가 본향당을 알고 여기와서 이걸 불태우라고 뭇 쓸데기 없는 짓이나 해서 태우려고 하니까 못 태운 것은, 여기 수리대가 옛날부터 있던거예요. 수리대를 잘라서 넣으니까 바람이 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그 대가 섰답니다. 그러니까 느닷 없는 바람의 힘이 수리대를 세워서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징표가 된다. 그래서 태우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모면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후에는 해방 후에 5.16이 시작하고 삼공화국 생겨서 할 때도 현오봉씨가 여긴 굉장히 보존을 많이 했죠. 왜냐면 그 장인이 솔동산에 사셨고 했는데 현오봉씨는 원래 수산 아납니까 성산 수산인데, 서귀포 오면 본향부터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본향을 살리니까 존중해주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런걸 보면 어디든지 본향신이 어느 마을에든 간에 가장 중요한 신인데 서귀포 본향은 보면 축원하고 기원하고 하는 그런 정성만큼 뜻을 이룬다. 한 예로 보면 근간에 제가 이제 서귀포본향당이 초가집이었는데 다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져가지고 지붕도 다 내려가지고 옆에 흙담 돌담만 있을 뿐이지, 다 집도 내려가지고 마루도 다 까져서 다 복삭 밑바닥엔 풀이 무성하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무오년에 제가 이걸 임시 초가집으로 허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조립식으로라도 복원을 해야겠다 해서 조립식으로 복원을 시켰죠.

그래서 했는데 내가 복원시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척들 중에 당 조카도 갑자기 죽고, 다른 조카들도 죽고 다른 형님도 죽고, 이게 삼시간에 1.2년 사이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여성들이나 같이 사는 분들은 걱정들이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집안에 본향이나 신을 잘 대접을 못해서 미움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무오년에 이것을 복원을 해놓고 심방들을 제주시에 있는 심방도 부르고 대정에 있는 심방도 부르고 여기 우리 백부 밑에서 굿을 배우고 했던 오봉조씨라든가 지금 이제 부인들하고 심방들이 한 일곱 여덟 분이 와서 성주내면서 본향맞이 굿을 했어요.

본향맞이 굿을 하면서, 이제 이 본향을 매일 심방을 추천을 해주십시오 해서 본향신에게 의뢰를 하니까, 본향신이 아무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나는 집을 지어서 드리고 편안하게 본향신께서 편안하게 계시고 좋은 심방으로 하여금 제를 받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내가 했는데,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심방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정안수만 떠서 올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알아질 도리가 있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정성을 정안수 떠놓고 촛불 켜고 향 하나만 꽂고 인사만 하고 나오고 한 것인데 3년 후 되니까, 내가 서서히 3개월 전부터 꿈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 꿈이 배를 타서 하늘을 날고 김영삼 대통령도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남들 같으면 복권 사면은 재수 좋을 거 아니겠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끈 것이 뭐냐면 하늘은 하늘인데 바다가 삼색으로 된 삼색 천 있죠 그것처럼 바다가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이 손을 이렇게 들고서 나보고 손을 펼치래요 양손. 양손을 펼치라고 해서 펼치니까 옛날 같으면 왕이 내리는 도장있죠 인장을 내 손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신긔을 해야겠다 해서, 신긔을 제가 5일 동안 했죠. 할 수 없이 조카도 죽어가고 형님도 죽고 여러 사람이 죽고 자식들도 걸어가겠다 하는데 자식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여. 나는 살만큼 살아서 죽어도 괜찮지만, 그래서 신긔을 하고 분부를 받으니까 그때의 신긔을 주관했던 분은 ‘박남화’씨예요 강정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촌수론 조카뻘 됩니다. 그분이 긔을 주관하고 여러 심방들 데리고 와서 5일 동안 긔을 했는데 그래서 분부를 내려서 분부를 받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기다린 것이 바로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하니까 제가 받은 것이 언제냐면 갑신년에 받았으니까, 이제 13년째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개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소원을 이룬다 하니까, 한전출신이에요 막 후배인데. 한전출신인데 여기 건너편에 살았는데, 그 분이 퇴직을 하고 부인도 어디로 도망가고 해서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소원이 10원 한 장 없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도 되고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되니까 자기 형제되는 누나한테도 집 한거리 사 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일이다.